



‘시가 다시 희망이다’

## 한국시 100년의 희망이 그림과 만나다

귀기서린 창백한 달을 향해 늑대 한 마리가 포효한다. 푸른 언덕아래, 도시의 어느 모퉁인가를 응시하는 늑대의 눈빛은 형형한 그리움이다. 박종수 화백의 늑대 그림은 이원규 시인의 시 〈월하미인〉과 짝을 이루었다.

“그믐계마다/밤마실 나가더니/저 년,/애 밴 년//무서리 이부자리에/초경의 단풍잎만 지더니/차마 지 아버지 밝힐 수 없는/저 년,/저 만삭의 보름달//당산나무 아래/우우우 피가 도는/돌벽수 하나”

한국시 100년의 ‘희망’을 확인하는 자리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국 현대시 100년을 기념해 사상 최대 규모의 시화전이 열렸다. ‘시가 다시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시화전은 ‘한국현대시 100년 기념 사업회’가 주최하고 계간〈열린시학〉사와 계간〈시조시학〉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시화전이 시작된 지난 2월 7일 세종문화회관 본관 전시실은 한국시 100년의 ‘희망’을 확인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전시된 시화는 모두 550여 점. 이 중 100점은 시의 내용에 맞는 그림을 새로 그렸고, 나머지 시화들은 출판된 시와 그림의 분위기가 비슷한 것으로 짝을 맞췄다. 그림은 한국미술협회 등에 시화전의 취지를 알려 협조를 얻었다.

- 1 현대시 100년 기념사업회장 신경림 시인.
- 2 이번 행사를 기획한 열린시학사의 이지엽 편집주간.
- 3 서예가 박영진 씨의 글씨나 전각가 정병례 씨의 작품은 이번 시화전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1908년에 발표된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기점으로 셈했을 때 올해로 100년에 이른 한국현대시. 이를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이번 시화전에 모인 시들은 현대시의 출발을 알린 한용운, 김소월 등의 작품부터 민족문화 진영, 모더니즘 계열까지, 한국시 100년을 아우르는 풍요로움으로 가득했다.

한국시 100년을 기념하는 시화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는 주부 김미선 씨는 “평소 시와 미술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큰 규모의 시화전이 열린 것이 무척 반갑다”며 “그림을 통해 한번 더 시를 읽는 기분이 들만큼 그림, 글씨, 시가 서로 잘 어우러진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 시는 꿈과 희망을 주는 상상력의 보고

특히 이날 오후에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신경림 현대시 100년 기념사업회장, 김년국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노재순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이들의 축사 뒤에는 김용직 서울대 명예교수의 <육당과 신문학운동> 발표, 소리꾼 박윤초 씨의 판소리가 이어져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열린시학사의 이지엽 편집주간은 경과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처음에는 대표적인 시인들의 시만 전시하려고 했으나 현대시 100년을 기념하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희망시인 모두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생존 시인의 작품은 본인이 자선한 것으로 했다.

100년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은 신경림 시인은 “지금 우리 민족이 안으로는 내부적 갈등, 밖으로는 남북간의 갈등을 겪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꿈과 희망을 주는 상상력의 보고인 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번 시화전의 의의를 밝혔다.

시화전의 즐거움은 시와 함께 그림, 글씨까지

감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문인화의 대가인 박종희 화백과 전각가 정병례 씨, 판화가 홍재연 씨, 서예가 박영진 씨 등의 그림과 글씨 등이 시의 감동을 더했기 때문이다.

이 편집주간은 “시인과 미술가가 1:1로 만나는 이런 기회를 통해 시단과 화단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시단과 미술단 발전에 크게 기여한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한국예술상’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시화전의 판매로 얻어진 수익금은 ‘한국예술상’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가 다시 희망이다’라는 표어에는 시가 갖는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물론이고, ‘더 이상 읽히지 않는’ 시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안타까운 호소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 현대시 100년은 풍요로웠다. 시화전을 관람한 이들이 전시장을 나서며 결국 맘에 담아간 것은 ‘다시 희망’일 수밖에 없는 그 풍요로움에 대한 선명한 ‘확인’이었다. **【주요뉴스】**

취재·이주연 기자 | 사진·박신우 기자

